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5월 17일(주일) 제1295호

교회, 코로나 이후 길을 묻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하는 2차 '순예배 간담회' 6월 웨비나 개최, 7월 교회 리더십 논의 예정

온누리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첫걸음인 '순예배 간담회' 그 두 번째 순서가 5월 18일 주간 실시된다. 온누리교회 모든 순에서 실시하고 있는 순예배 간담회는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을 주제로 5월 11일 주간과 5월 18일 주간 두 차례 이어진다.

온누리교회가 준비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은 '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변화와 인식, 코로나 이후 성도 개인과 교회에 바라는 점 등을 교회가 겸허하게 수렴하는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순예배 간담회다.

순예배 간담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하면 된다. 첫째, 공동체 담담목사가 순장교육에서 순장들에게 순예배 간담회 취지와 배경, 향후 계획과 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순장들은 순예배 간담회 가이드라인, 진행순서, 토의 자료 및 토론

주제 등을 숙지 및 확인해야 한다.

둘째, 순예배 시작 전에 순장과 순원들이 토의자료를 함께 읽고,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온라인 질문지(<http://bitly.kr/O9ZHAfkvl>)'에 접속한 다음 설문내용을 미리 작성한다. 온라인 질문지는 가능한 순원 개인별로 작성하고, 순장도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셋째, <생명의 삶>을 활용해서 간략하게 순예배를 드린 다음, 미리 작성해둔 온라인 질문지 내용을 바탕으로 순예배 간담회를 실시한다. PC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순원들이 있는 경우에는 순예배 간담회 토론을 먼저 실시한 다음, 순예배가 끝나고 3일 이내 순장이 온라인 질문지를 대신 입력해주면 된다.

순예배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순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도 온라인 질문지 링크에 접속해서 참여하면 된다.

순예배 간담회 전에 온누리신문(5월 3일자, 10일자, 17일자)에 보도된

순예배 간담회 관련 기사 파일(PDF)을 미리 읽거나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순예배 간담회 관련 카드뉴스를 시청하면 도움이 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도 관련 자료들이 게재되어 있다.

순예배 간담회 이후에는 온누리미래위원회가 순예배 간담회에서 수집된 성도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토론 주제를 선정하고, 6월 중에 웨비나(웹과 세미나의 합성어)를 개최할 예정이다. 웨비나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를 비롯한 온누리교회 리더십과 성도가 실시간으로 쌍방향 의사소통을 할 예정이다. 1, 2차 순예배 간담회와 웨비나에서 나온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는 7월 중 당회에서 논의한 다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누리교회의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관련기사 2-3면>.

온라인 질문지:
(<http://bitly.kr/O9ZHAfkvl>)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새로운 미래 준비하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은 비상한 영적 분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소수의 지도자에 의한 분별에 따른 방향 제시와 함께 공동체 모두의 참여에 의한 분별도 중요합니다. 온누리교회 순원들이 참여하는 이 간담회는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전문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온누리교회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이재훈 드림

온누리교회 선교기관 위기관리 체제 돌입

5월 비전현금 코로나19 피해 선교지 국가 후원

2000선교본부부터 온누리교회 모든 선교기관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온누리교회 선교기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될 때까지 선교지 긴급구호 및 귀국 선교사 케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재 온누리교회 선교기관 파송 선교사들은 선교지 주민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긴급구호 사역에 전념하고 있다.

지금까지 온누리교회 선교기관들은 44개국에서 선교사 가정 60가구와 선교지 주민들에게 2억 원 상당의 식료품, 생필품, 마스크, 소독제 지원과 방역,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중앙아시아의 한 교회는 온누리교회의 긴급구호를 받고 나서 "우리도 조금씩이나마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자"며 믿지 않는 지역 주민들을 돕기

시작했다. 르완다의 파스칼 목사는 "이 구호품은 가난한 가정에게 희망의 표시가 되었다"고 감사인사를 보냈다.

온누리교회 선교기관들은 추가적인 긴급구호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마련과 수요조사에 힘쓰고 있다. 이번 주일(5월 16, 17일) 봉헌하는 5월 비전현금도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선교지 국가들을 후원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2000선교본부에서는 선교사와 선교단체의 결정에 따라 귀국하는 선교사들을 케어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선교사들의 귀국 항공비와 자가격리 비용, 숙소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70여 명의 선교사가 귀국했다.

후원 문의: 02-3215-3208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910018-31505

〈순예배 간담회 가이드라인을 위한〉 Q&A



Q. 1차 순예배 간담회를 해보니 순모임 중심으로 진행되더군요. 그럼 순에 소속되지 않거나 순에 소속되어도 사정상 순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성도님은 이번 간담회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A.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순예배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온누리신문(5월 17일자)과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 링크를 통해 참여하시면 됩니다. 링크에 간담회 가이드라인과 토의 자료 설문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 2차 간담회 자료는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5월 셋째 주(18일 주간)에 진행할 2차 자료는 17일(일)~18일(월) 사이에 공동체 리더십을 통해 순장과 순원들께 전달될 것입니다. 순모임에 나올 수 없는 성도님들은 온누리신문과 교회 홈페이지에 걸려둔 링크에 접속해서 토론자료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Q. 순예배 간담회를 통한 또는 직접 링크를 통한 의견을 제시할 때 성도님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온누리신문(5월 3일자, 10일자, 17일자)입니다. 이것은 순장님을 통해서 이미 전달받으셨는데, 필요하면 온누리신문 홈페이지를 방문해 PDF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Q. 이번 주 2차 순예배 간담회가 끝나면 간담회 결과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A. 1차적으로는 웨비나 토론 주제 선정과 진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2차적으로는 향후 교회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Q. 5월 간담회와 6월 웨비나 결과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A. 5월 중 간담회와 6월 중 웨비나의 결과는 7월 중 당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 리더십에 보고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누리교회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Q. 과거에도 성도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는 몇 차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것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A. 이번 간담회와 웨비나는 시작하는 출발점과 지향하는 종착점이 다릅니다. 단순한 일방적 설문조사에 그치는 게 아니고, 순모임에서 진솔한 토의가 먼저 진행됩니다. 한 달간 순모임에서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 단계가 진행됩니다.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회 리더십과 성도 간에 실시간 양방향의 의견 교환을 위해 웨비나를 갖게 되는 점이 과거와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7월부터는 교회 리더십 안에서 신중하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 후 논의 경과에 따라 올해 가을부터는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과정을 토대로 성도들과 교회 리더십 간의 소통과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Q. 3천여 개 순에서 모인 방대한 분량의 간담회 결과를 누가 분석하고, 어떻게 사용하게 되나요?

A. 3천여 개 순과 여기에 소속된 수만여 명의 성도님들의 의견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전문기관의 분석자료는 1차적으로 6월 웨비나를 준비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2차적으로는 7월 중 당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 리더십의 논의 과정에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2차 순예배 간담회 토론 주제

1차 간담회 주제는 '세상에서의 나' 였습니다. 2차 간담회의 주제는 '신앙과 교회' 입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교회에 대해 응답 부탁드립니다.

- Q1.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내가 느끼는 가장 크고 본질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 Q2.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변화가 나의 신앙생활에서 깨달은 점과 회복해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 Q3.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교회 차원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Q4.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Q5.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온누리교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Q6. 5번 질문처럼 교회의 최우선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 온누리교회 성도 개인으로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준비합시다! | '순예배 간담회' 5월 18일 주간 토론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

대학생, 청년, 회사원, CEO에게 묻다

온누리교회 모든 순예배에서 '코로나 이후 세계 변화와 교회의 대응'을 주제로 5월 18일 주간 두 번째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주(18일 주간) 순예배 간담회에서 나눌 질문을 대학생, 청년, 회사원, CEO에게 먼저 물었다. 토론주제는 '코로나 발생 이후 느낀 가장 크고 본질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신앙생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위해 교회 차원에서 새로이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할 이슈는 무엇인가?', '교회와 성도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등이다.

이 질문에 박예찬 형제(25세, 대학원생, 하늘대학부), 석희진 자매(24세, 대학생, 하늘대학부), 심혜랑 자매(35세, 회사원, SNS공동체), 최병선 집사(48세, 회사원, 가정사역공동체), 김창석 집사(58세, CEO, 강동 온누리교회)가 응답했다.

/ 편집자 주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크고 본질적인 변화(신앙생활)

박예찬 형제(25세, 하늘대학부)는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이다. 그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모든 예배와 교회 모임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영적 위기감을 느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전을 받았다.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으로 참여했던 예배와 모임들이 하루아침에 멈추고, 사라지면서 ‘내가 지키고 싶다고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위기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위기감이 제게 또 하나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없게 되면서 지체들과 함께 매일 밤 11시 온라인으로 라이브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체들과 함께 온라인 라이브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제가 한 걸음 더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이브 기도회 덕분에 혼자 있는 시간에도 기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심혜랑 자매(35세, SNS공동체)는 교육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 그녀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와 크리스천의 사회적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문이 잠기면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었지만, 성도들의 활동 폭이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도와 교회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또 교회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선 집사(48세, 가정사역공동체)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다. 그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크리스천의 자기주도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다. 또한 차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과제도 발견하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순예배에 참여하면서 크리스천 스스로의 자기주도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홀로 예배’와 ‘묵상’을 통한 자기주도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적절하게 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크리스천의 또 하나의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기주도 신앙생활이 취약한 자녀들을 위해 크리스천 부모들이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실천이 새로운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김창석 집사(58세, 강동 온누리교회)는 CEO(청년벤처창업 컨설팅)다. 김 집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신앙

생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전통적인 교회 및 예배생활에 대한 예외 규정(온라인 예배 등)이 생기는 걸 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해봐야 할 때임을 절감했습니다. 새신자, 일대일 제자양육 등을 섬길 때 비대면 속에서도 공감과 복음 전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새로이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할 이슈(교회차원)

김창석 집사는 미디어에 민감한 차세대를 위한 짜임새 있는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젊은 세대, 특히 차세대들은 미디어에 특화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단순히 영상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다 짜임새 있는 온라인 예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 특성상 자기 편한 시간, 자신이 원하는 때, 편한 자세와 복장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당 예배와 마찬가지로 겸손과 정결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헌금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쌍방향, 실시간으로 헌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교회가 강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희진 자매(24세, 하늘대학부)는 무엇보다 크리스천들이 위선적인 부분을 회개하고 행동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단(신천지), 동성애자(이태원 게이클럽)들로 인한 집단 감염 사태를 보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은 누구나 하잖아’ 같이 남몰래 타협하는 위선적인 죄의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 국가적 지침(사회적 거리두기)과 교회 내 방역에 힘쓰고, 작은 행동도 조심하며 정직함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예찬 성도는 지금이야말로 교회와 성도가 세상 사람들로 부터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다.

“나중에 지금 이 시간을 회상했을 때,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공동체였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수고가 더해질수록 훗날 사람들이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선 집사도 교회와 크리스천의 사회적 역할을 주문했

다.

“나중에 이 시대를 돌아보았을 때 사람들 머릿속에 ‘그래도 교회가 옆에 있어줘서 덜 외롭고 덜 힘들었다’고 회고할 수 있는 일을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구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본질 회복을 위하여

심혜랑 자매는 교회와 크리스천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는 교회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와 크리스천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예배당에서의 종교생활이 아니라 교회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 실천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 준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소비운동처럼 교회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하나씩 행한다면 분명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희진 자매 또한 교회와 크리스천의 본질이자 정체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와 성도들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개인의 경건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서로 나누고, 돕고, 비난하지 말고, 포용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박예찬 형제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제가 친구들(비신자들)을 전도해야겠다는 의무감으로 대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또한 머릿속으로는 잘 알지만 진심으로 공경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김창석 집사는 교회와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를 위한 리더십과 늘 새로이 선포되는 강력한 말씀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회의 주축은 젊은 세대(30~40대)가 되어야 하는데, 이 연령대 리더십이 많이 없습니다. 또한 젊은 연령대 성도들을 자극하고 이끌어가려면 목사님들의 새롭고 강력한 말씀 선포가 필요합니다.”

언택트 시대, 심리적 거리 가깝게 만드는 교회

교회가 준비해야 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와 역할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이 나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쓰여가고 있다.”

〈사피엔스〉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역사가이자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 내놓은 전망이다. 유발 하라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새로운 규칙의 시대’라고 정의했다. 유발 하라리 외에도 수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이견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정치, 경제, 외교, 교육, 노동, 종교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일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준비해야 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와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는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는 재시동(reboot; 리부트)의 기회다. 하드웨어의 시대가 끝나고 바이오, 사이버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토머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장).

“뉴노멀! 감염증이 기술(텔레프레젠스: 실물 크기 화면으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솔루션,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로봇 배달 등)진보를 강제했다”(넬 왓슨 싱글래티대 미래학자).

세계적인 미래학자들과 정치가들이 쏟아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전망들이 이렇게 나 많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측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단어가 ‘뉴노멀’이다. 뉴노멀(New Normal)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사회적 혹은 경제적 표준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경제 모델들이 급부상했었는데 이 또한 일종의 뉴노멀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새로운 표준이 무엇일까? ‘사회적 거리두기’(물리적 거리두기), ‘마스크의 일상화’(위생관념), ‘재택근무’(직장 및 근무환경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것들은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뉴노멀이다. 그 핵심에는 ‘언택트(비대면)’가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뉴노멀 ‘언택트’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다. 외출 자제, 재택근무, 대중 집회 및 행사 참석 자제 등이 이에 속한다.

코로나19는 ‘인사’에 관한 행동양식도 변화시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보건당국은 악수 대신 팔꿈치를 가볍게 부딪치는 팔꿈치 터치나 손을 흔드는 인사를 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일환으로 악수 대신 팔꿈치 인사를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식사문화도 바꾸어놓았다. 회식 문화가 사라지는가 하면, 사내 식당을 비롯한 여러 식당에서 간격을 두고 자리를 배치하거나 테이블 중간에 투명판넬(벽)을 설치해서 비말감염을 방지하고 있다.

직장 및 근무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대

표적인 것이 재택근무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 3월 1,08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시행했거나 시행예정인 기업이 40.5%(441개사)로 조사됐다. 10대 그룹은 물론 IT기업들이 재택근무 대열에 적극 동참했다. 프리랜서 인구도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은 이미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프리랜서 비중이 전체 노동인구의 35~40%에 이른다. 일본도 프리랜서가 1,20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 모든 변화의 기저에 ‘언택트(untact; un+contact)’ 개념이 깔려있다. 언택트는 ‘접촉(contact)’이라는 말에 부정(前)을 뜻하는 ‘un’이 결합해서 생긴 신조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줄어드는 양상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지난 2017년 10월 출간된 〈트렌드코리아 2018〉에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기술 발달로 인한 비대면 기술보다는 다른 사람과 대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신세대의 심리적 성향을 주목하는 의미로 사용했었다. 그러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 단어가 새로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소멸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일상에서의 대면접촉을 줄이는(비대면) 생활방역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택트 바람이 가져온 단적인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언택트 기술(영상회의 시스템 등)이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에서는 비대면 대출반납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AI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한 비대면 출입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병원도 등장했다. 국내 한 회사에서는 안면인식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커뮤니티화폐’ 서비스를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다. 원격의료와 원격교육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급부상했다.

언택트는 기존의 뉴노멀을 쇠퇴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단적인 예가 공유경제의 침체다. 코로나19는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기업에 타격을 줬다. 우버는 전 직원의 14%(3천7백 명)를 해고한다고 했고, 에어비앤비는 전체 인력의 25%(1천9백 명)를 감축한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는 언택트의 싹 싹 키워줘야 한다

언택트는 교회의 일상도 크게 바꾸어놓았다.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공예배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대신 온라인 예배가 새로운 트



“공동체 안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야겠지만

심리적 거리는 오히려 더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변화이자 역할이다.”

렌드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 온누리교회 역시 CGNTV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예배로 발 빠르게 전환했다. 뿐만 아니라 드라이브인 예배, 온라인 기도회, 온라인 순예배, 온라인 양육까지 성도들의 예배와 영성생활, 성도 간 교제와 목양에도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았다.

언택트는 사람이나 기계를 접촉하지 않아도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편한 기술이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타인과의 접촉을 꺼림으로써 개인화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고, 기계를 통한 소비와 업무가 일상화되면서 사람과의 소통 감소나 단절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언택트 문화를 확산시킨 기술 발전(AI인공지능, 5G, 사물인터넷 IoT, VR 등)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무엇보다 언택트 문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니어들이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마켓 이용을 못하고,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주문을 못해서 원하는 햄버거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모처럼 재개된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만 바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줄 몰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이처럼 언택트는 불편함과 소외감, 사회와의 단절을 불러오는 그림자가 있다.

유일한 통로 교회가 편리함 이면에 숨어 있는 언택트의 삭막함을 풀어줘야 한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는 철저히 지켜야겠지만 심리적 거리는 오히려 더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변화이자 역할이다.

온누리교회는 온라인 양육, 온라인 기도회, 화상 순예배, 드라이브인 예배 등으로 영적 손실과 공예배의 허전함을 메우는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시점에 심리적 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순예배 간담회 및 웨비나 등을 활용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향후 교회 방향 설정에 활용하려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온누리교회의 이러한 노력이 바로 언택트 시대 심리적 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교회의 역할이 분명하다.

토머스 프레이 소장(미국 다빈치연구소)은 “우리는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교회도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미 막 올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변화와 역할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폴 비츠가 쓴 <무신론의 심리학>은 많은 무신론자들의 심리를 연구한 책입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아버지의 부재나 아버지로부터 부정적 영향력을 받은 심리에서 무신론이 나오고, 체계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입니다.

니체는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신자들을 끊임없이 비난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아시절 아버지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경험했고, 또 아버지에 대해 강렬한 애착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5살 무렵 아버지가 병들어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병약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하나님께 적용하여 “신은 죽었다”는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볼테르라는 사람은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하여 강하게 부정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매우 큰 상처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그가 법조계에서 일하기를 바랐지만 그는 문학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보내거나 서인도로 추방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아버지와는 갈등이 그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17살 때 아버지가 자살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어머니의 사랑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가 아버지의 자살로 ‘부모님이 나를 영원히 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분석가 프로이트의 아버지는 매우 유약했다고 합니다.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착자로서 자녀들에게 매우 큰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정신분석 이면에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 무의식적인 혐오, 거부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신이라는 존재는 원래 없는 것인데 인간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 잘못된 육구와 상처 경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역사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화학자인 파스칼의 아버지는 아내가 죽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판사직까지 내려놓고 아들이 수학과 과학에 흥미가 많다는 것을 알고 집에서 직접 양육했다고 합니다. 파스칼은 집에서 아버지와 식

사할 때 화약의 폭발 원리, 물이 펌프를 타고 오르는 원리, 반개효과, 물체가 물에 뜨고 가라앉는 일 등을 대화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파스칼이 어린 나이에 여러 수학법칙을 발견하는 위대한 수학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파스칼은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성장하며 성경을 체험하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확립했습니다. 나치에 저항했던 본회파의 아버지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녀들과 식사했고, 자녀들을 존중하고, 애정을 가지고 대했던 훌륭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 체험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체험하고 아는 통로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로부터 긍정적 영향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복음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다면, 모든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를 뛰어넘어 온전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라고 불렀을 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바’는 아람어입니다. 우리말로 ‘아빠’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저희들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속

아버지의 손

요한복음 10:28~30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의 손이 함께 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지더라도 더 큰 돌보심을 위한 그림자입니다.”

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면하게 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속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초점이 궁극적으로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모아지지 않으면 신앙이 파편화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눅 23:46).

예수님은 평생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로 내어 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손에 자신을 맡겨드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넘긴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손으로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요.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28~30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손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다윗이 모든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손이 자신을 붙들어 주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

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시 3:5-6).

모세도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계속 먹을 때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탄원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고기가 지저워질 때까지 먹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이 많은 사람에게 고기를 먹이려면 바다의 모든 고기를 먹인다 한들 충분하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와 손이 그렇게 짧으냐? 내가 말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보게 될 것이다’”(민 11:23).

모세는 하나님의 손이 짧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손이요, 우리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사 41:10).

그런데 때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손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분이 내 입을 예리한 칼처럼 만드셨고 주의 손 그림자 아래에 나를 숨기셨다. 그분이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셨고 그분의 화살통에 나를 숨기셨다”(사 49:2).

참된 신앙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늘이 하나님 아버지 손의 그림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의 그림자는 우리를 더 큰 위험에서 숨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 그림자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그늘 아래 처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더 큰 사랑과 능력으로 축복하시는 시간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때로 그들이 지더라도 더 큰 돌보심을 위한 그림자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CGNTV대표 이용경 장로와 직원들이 미혼한부모 가정을 섬기는 '러브더월드'를 방문해 식료품키트를 포장하고 있다.

CGNTV, 코로나19 극복 특별모금액 전달

러브더월드, 등대교회 등 전국 28개 단체 후원

CGNTV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모금 '사랑으로 함께!' 모금액 1억 5천만 원을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단체 13곳과 전국 15개소 청소년 회복센터에 전달했다.

지난 5월 7일 CGNTV 대표 이용경 장로를 비롯한 임직원 20여 명이 러브더월드를 방문했다. 기부금 5천만 원과 미혼한부모 가정을 위한 식료품 키트 100박스 포장하는 것을 함께

했다. 지난 5월 13일에는 함태경 본 부장을 비롯한 CGNTV 임직원 12명이 '등대교회'를 방문해서 기부금 5백만 원을 전달하고 급식사역을 도왔다. 쪽방촌을 방문해서 선물을 전달하고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CGNTV 대표 이용경 장로는 "CGNTV 2,300여 명의 후원자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임직원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었다"면서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CGNTV가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CGNTV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단체 13곳과 전국 15개소 청소년 회복센터를 선정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라인 예배, 드라이브인 예배 지속

온누리교회 유튜브 및 CGNTV, 양재 현주차장

온누리교회가 예배당 주일예배와 더불어 온라인 예배와 드라이브인 예배를 당분간 지속한다.

온라인 예배는 CGNTV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참여하면 된다. 토요주일예배 1~3부, 일요주일예배 1~7부, 새벽기도회(1부 오전 5시 20분, 2부 오전 6시 30분, 토요일은 없음)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차세대, 대학청년부(홀리스타 포함), 외국어예배(영어예배, 일본어예배, 중국어예배, 프랑스어예배, 스페인어예배), 사랑부(장애인예배) 주일예배를 각 예배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하단 예배 안내 참조).

드라이브인 예배는 양재동 현주차장(양재대로 12길 25)에서 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30분에 드린다.

드라이브인 예배는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88.5MHz)에 맞춰 설교를 듣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예배이다. 드라이브인 예배에 참석하려면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바코드를 미리 발급받고 사전신청을 하면 된다.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예약할 수 있다. 예배당 차량 250대를 선착순 마감한다. 드라이브인 예배 실황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드라이브인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자동차 안에 머물면서 성도들 간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자동차 창문을 열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예배가 끝나면 다음 예배 진행을 위해 빠르게 출차해야 한다.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두란노바이블칼리지에서 온라인 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한다.

'기독교 고전문화와 영성' 세미나가 5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6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기독교 고전문화 작품들의 중심 주제와 본문을 영성신학적 관점에서 해설하고 강독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로렌스 수사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성 프란체스코의 글', 아빌라의 테레사의 '영혼의 성'을 주제로 박세훈 목사(새문안교회), 유재경 목사(대덕교회 담임), 이주형 목사(송실대 교목)가 강의한다. 회비는 11만원. 내일(18일)까지 신청하면 2만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279

서빙고 농어촌선교팀 '승합차' 급구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에서 농어촌 미자립교회에 지원할 승합차를 긴급하게 구하고 있다. 농어촌교회에게 승합차는 성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교통편이다.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 특성상 거동이 불편하고, 연로한 주민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승합차가 필수적으로 운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농어촌교회에서 운행하고 있는 승합차들은 연식이 오래되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농어촌교회들이 승합차를 안전하게 운행하며 지역 복음화에 힘쓸 수 있도록 성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문의: 02-3215-3434, 3436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농어촌교회를 후원해 주십시오"

삼천포로 불리던 남해 끝자락 사천에 사촌교회가 있습니다. 사촌교회 이종민 목사님은 항상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인근 12개 마을에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종민 목사님이 5년 전 사촌교회에 부임했을 당시 교회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황폐했다고 합니다.

성도 5명, 한 달 헌금 5만원이 고작인 교회에서 이종민 목사님은 계란을 삶아 마을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성도가 50명으로 증가했을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목사님의 발이 되어 이 마을, 저 마을로 운행했던 승합차가 40만km를 넘게 주행한 끝에 운행중단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일마다 마을을 돌며 어르신들을 교회에 모셔오던 승합차가 언제 멈출지 몰라 이종민 목사님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사촌교회는 가수 노사연 집사를 초대해서 마을전도집회를 개최할 정도로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이 남해 지역 거점교회로 삼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교회입니다. 사촌교회가 남해 지역 거점교회로써 타 교회를 지원하고, 지역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움이 절실합니다. 상황이 열악한 농어촌교회를 후원해 주십시오.

/ 박진호 집사(서빙고 농어촌선교팀장)



지난해 8월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이 사촌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NGO 더멋진세상, 기니비사우 고아원 희망 캠페인

NGO 더멋진세상이 아프리카 기니비사우 까냐멜고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생활비를 후원하는 '기니비사우 고아원 희망 캠페인'을 6월까지 실시한다.

기니비사우 까냐멜고아원에는 어린이 15명이 생활하고 있다. 어린이 1인당 1개월에 생활비 3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문의: 02-2271-2248

온라인 예배 안내

1.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주일예배(1~7부)와 새벽예배(1부 오전 5:20, 2부 6:30)에 참여합니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www.youtube.com/user/Onnuriservice
-CGNTV: www.cgntv.net
2. 개인영성 관리를 위해 생명의 삶(QT)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새벽예배',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나를 위한 매일 기도 마리아행전 123'에 매일 참여합니다.
3. 공동체 순장모임과 순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4. 차세대 온라인 주일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9:00, 11:30, 오후 2:00
-꿈이지라는땅 오전 9:00, 11:30, 오후 2:00
-파워웨이브 오전 9:00, 11:30
-차세대 전용채널:
www.youtube.com/c/온누리교회차세대
5. 대학청년 온라인 예배
- 주일예배: 토요일 오후 6:00, 주일 오전 11:00, 주일 오후 2:00, 4:00, 5:30
- 홀리스타: 오전 6:30(월~금)

- 대학청년 전용채널: www.youtube.com/c/온누리교회대학청년

6. 외국어 온라인 주일예배
-영어예배 오전 11:00, 오후 4:00
-일본어예배, 중국어예배, 스페인어예배, 프랑스어예배 오후 2:00

7. 장애인 온라인 주일예배
www.youtube.com/c/온누리교회장애인사역

이웃에게 귀 기울이고, 기도하고, 아픔 나눈다!

한강공동체 믿음다락방 임마누엘선교교회 공감소비운동

온누리교회 공감소비운동이 본격 시작됐다. 공감소비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취약계층 이웃들을 돕는 교회의 사회적 나눔 운동이다. 온누리교회를 비롯해서 85개 교회가 동참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공감소비운동은 '부활의 50일을 전통시장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교회가 4월 비전헌금과 부활절 헌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서 각 다락방에게 전달하면, 각 다락방 구성원들이 소정의 헌금을 보태서 지역사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물건을 구입한 다음 소외된 취약계층 이웃들을 찾아가 전달하는 방식이다.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도 함께 전한다.

온누리교회 공감소비운동의 도움을 받은 이웃들에게서 벌써부터 감사인사와 간증이 이어지고 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강공동체 믿음다락방이 찾아가간 동두천 임마누엘선교교회(이하 임마누엘선교교회) 사례를 소개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한강공동체 믿음다락방 배기석 집사와 백남진 집사가 생필품이 가득 담긴 상자를 들고 좁은 계단을 오르고 있다. 그들의 얼굴에는 싱글벙글 웃음꽃이 활짝 피어있다. 그 발걸음은 또 얼마나 가벼웠는지 모른다. 그들이 찾은 곳은 임마누엘선교교회다. 임마누엘선교교회 윤병희 목사와 변용성 목사 부부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임마누엘선교교회 예배당에는 책장과 책상, 의자, 타일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윤 목사 부부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임마누엘선교교회로 거주지를 옮기는 중이었다. 임마누엘선교교회는 윤 목사 부부가 거처로 삼을 만큼 공간이 넉넉하지 않다. 임마누엘선교교회는 동두천 작은 동네에 있는 4층짜리 건물 2층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예배당과 목회실, 맞이방이 공간의 전부다. 예수를 믿긴 윤 목사 부부가 좁고 불편한 곳으로 이사를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다.

사업이 무너지고, 살던 집까지 잃었지만, 이주민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남았다

임마누엘선교교회는 이주민사역을 하는 교회다. 동두천에 있는 많은 이주민들이 임마누엘선교교회를 찾고 있다. 정착 성도는 많지 않지만 이주민사역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많게는 하루에 이주민 60~70명이 임마누엘선교교회를 찾는다. 윤 목사 부부는 이주민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라면 밤낮 가리지 않는데 그 덕분에 이주민들이 임마누엘선교교회를 자주 찾는 것이다. 이주민들은 윤 목사 부부를 “엄마 아빠”라고 부른다. 이주민들은 감기에 걸려도 교회에 오고, 배탈이 나도 교회에 온다. 그만큼 윤 목사 부부가 이주민들을 세심하고 따뜻하게 돌보고 있다는 증거다.

윤 목사 부부의 이주민들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평신도 시절부터 남달랐다. 매일 공장을 찾아다니며 이주민들을 만났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주민 30여 명을 전도하기도 했다. 윤 목사 부부의 이주민들에 대한 사랑이 커질수록 이주민사역에 대한 마음도 깊어졌다. 윤 목사 부부는 본격적으로 이주민사역을 하려고 함께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주민들을 섬기기 위

해 세운 교회가 바로 임마누엘선교교회다.

변용성 목사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다. 연매출 120만 달러를 달성 할 정도로 역량 있는 원단 무역사업을 했다. 변 목사는 이주민사역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와 사업을 병행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몇 해 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빚이 말도 안 되게 쌓여 갔고, 도움의 손길에 의지해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얼마 전에는 파산 직전까지 갔었다. 주변 사람들이 윤 목사 부부에게 파산을 신청하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그럴 순 없었다.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임마누엘선교교회를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윤 목사 부부의 고민과 시름이 그만큼 깊어져만 갔다.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주민사역을 접어야 할 정도로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윤 목사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 한 구석에서 지긋지긋한 이주민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주민들의 영혼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결국 윤 목사 부부는 살던 집을 정리해서 빚을 갚고, 임마누엘선교교회에서 생활하기로 했다. 윤 목사 부부의 결정에 두 딸이 눈물을 쏟아내며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두 딸이 보기에는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교회에서 부모님이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속상해서 만류할 수밖에 없었다. 윤병희 목사가 우는 딸들의 손을 잡고 다독였다.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는 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외풍이 너무 심하고, 따뜻한 물도 안 나오는 교회에서 과연 생활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누군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의 일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깐 괜찮더라고요. 거리로 나왔지 않은 게 어딴니까. 그래서 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설득했습니다.”

공감소비운동, 진짜 좋은 이웃 되는 방법이자 기회

윤병희 목사 부부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교회로 이사를 준비하던 무렵 온누리교회 공감



한강공동체 믿음다락방은 공감소비운동으로 임마누엘선교교회에 생필품, 전도용품, 헌금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백남진 집사, 변용성 목사, 윤병희 목사, 배기석 집사)

소비운동이 시작됐다. 배기석 집사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던 중에 문득 1다락방1사역으로 섬기고 있던 임마누엘선교교회가 떠올랐다. 윤 목사에게 안부차 전화를 걸었다가 임마누엘선교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다. 배 집사는 곧바로 공감소비운동 사역을 신청했다. 한강공동체와 믿음다락방에서는 윤 목사 부부를 도울 헌금을 봉헌하기로 했고,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에서도 후원금을 주기로 했다. 그렇게 한강공동체와 믿음다락방 성도들의 헌금, 사회선교본부의 후원금, 지역사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구입한 물건을 챙겨 배기석 집사와 백남진 집사가 임마누엘선교교회를 방문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전기밥솥, 후라이팬 등 식기구들과 이주민 전도에 사용할 음료수, 라면, 과자 등의 간식거리를 구입했다. 백남진 집사가 임마누엘선교교회에 공감소비운동에서 구입한 물건을 전달하며 소감을 밝혔다.

“정말 귀한 이주민사역을 하고 있는 임마누엘선교교회를 도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공감소비운동에 참여하면서 윤 목사님께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 여쭙봤더니 이주민 전도용품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사정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자신보다 이주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윤 목사님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공감소비운동에 참여하면서 작게나마 임마누엘선교교회를 도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윤병희 목사는 작은 도움이 아니라 정말 큰 사랑과 도움을 받았으며 온누리교회에 감사인사를 건넸다.

“저희가 온누리교회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온누리교회는 정말 섬김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라는 생각합니다. 늘 이웃들의 필요를 살피고, 사랑을 나누주는 온누리교회의 섬김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온누리교회가 공감소비운동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이웃을 위한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 해가는 교회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배기석 집사는 공감소비운동에 참여하면서 진짜 이웃이 되는 방법을 깨달았다고 했다.

“공감소비운동이야말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진짜 이웃이 되어주는 값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들에게 진짜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나누면서 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물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의 이야기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이보다 좋은 이웃사랑 실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소비운동은 5월 31일(일)까지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각 다락방장은 6월 14일까지 사역보고서를 작성해서 사회선교부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 02-3215-3434, 3436(사회선교부)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서빙고 주차봉사사역팀

주차봉사사역팀은 성도들이 주차문제로 불편 없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회에서 주차문제로 겪는 불편 때문에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섬기고 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다.

주차봉사사역팀의 우직한 섬김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흔들지 못했다. 교회가 예배당 예배를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실시 중인 드라이브인 예배에서도 주차봉사사역팀의 헌신이 이어졌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4월 12일부터 양재 현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시작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안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었다. 처음 실시하는 예배 방식에 모두가 어색했는데 그 순간 주차봉사사역팀의 헌신이 더욱 빛을 발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20년 넘게 이어온 주차봉사사역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도들이 예배드리면서 조금의 불편도 없도록 도왔다. 서빙고 주차봉사사역팀장 강영희 집사(영등포구로공동체)는 난생 처음 드라이브인 예배 현장에서 주차봉사 하던 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오랜만에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늘 같은 자리에서 우직한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 서빙고 주차봉사사역팀.

에 전날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던 날 주차봉사조끼를 입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날은 서빙고와 양재 주차봉사사역팀이 함께 모여 섬겼습니다. 함께 섬김을 감당하며 얼마나 반갑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차봉사사역팀의 주일은 안 그래도 바쁘는데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새롭게 추가된 드라이브인 예배, 토요일, 일요일 예배당 예배까지 섬겨야 해서 더 바빠졌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서빙고 주차봉사사역팀에서는 팀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는 작은 프로젝트도 시작했다. 단체채팅방에서 팀원들을 격려하는 ‘칭찬 릴레이’를 시작했다. 팀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팀원 한 사람을 지목해서 칭찬하고, 지목 당한 팀원이 또 다른 팀원을 지목해서 칭찬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칭찬을 받은 팀원은 작은 저금통 하나를 마련해서 일정기간 동전을 모아 서빙고 주차봉사사역팀에 제출한다. 그렇게 주차봉사사역팀원들의 이름으로 모인 작은 저금통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서빙고 주차봉사사역팀원 모두 기쁜 마음으로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다.

강영희 집사가 주차봉사사역팀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함께 섬길 동역자를 초대했다.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헌신하는 주차봉사사역팀원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시간을 지나면서 힘들고 지칠 수도 있는데 함께 모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봉사사역은 예배의 처음과 끝을 섬기며 돕는 아주 의미 있고 보람된 봉사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차봉사사역팀으로 오십시오.”

서빙고 온누리교회 메인밴드

결코 예배를 멈추지 않으며...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많은 것이 멈춘 듯 보였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간 것이 하나 있다. 예배다. 교회의 문이 닫히고, 예배가 멈추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예배는 성도 각자의 장소, 모양, 시간으로 드러났다. 온누리교회는 예배를 결코 멈추지 않았다. 온누리교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면서 예배를 멈추지 않기 위해 온라인 예배, 예배당 예배, 드라이브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본 예배당은 텅 빈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영상에 잡히지 않는 앵글 밖에서는 매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분명 존재했다. 찬양사역을 섬기고 있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메인밴드(이하 서빙고 메인밴드)도 그 주인공이다. 서빙고 메인밴드는 모든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될 때도 안전 수칙을 지키며 예배당에 모였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찬양과 연주를 이어갔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모여 찬양하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준 형제(서빙고 메인밴드 팀장, 드럼)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집에서 예배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이지 않는 예배당이 어색하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비어 있는 예배당을 보면서



서빙고 온누리교회 메인밴드는 일요일 1~3부예배를 섬기고 있다.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순간 더욱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시간이 더욱 감사해졌습니다.”

장현호 형제(서빙고 메인밴드 일렉기타)는 텅 빈 예배당에서 찬양하면서 허전하고 공허한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연주하면서 리허설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어딘가 허전하고 공허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빨리 다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었습니다.”

김기아 자매(서빙고 메인밴드 건반)는 예배당에 나와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했다고 고백했다.

“텅 빈 예배당을 마주하면서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그리움과 소중함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아직도 모든 성도님들이 다함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두 달여 시간이 지나고 일부지만 예배당 예배가 재개됐다. 서빙고 메인밴드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기분이 남달랐다.

김선혜 자매(서빙고 메인밴드 건반)는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을 보며 감사기도가 절로 나왔다고 말했다.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습니다. 오랜만에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시면서 울고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성태 형제(서빙고 메인밴드 베이스기타)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예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느끼고, 새로운 예배 방식에 대한 기대도 생겼다.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예배당이 너무 어색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꼭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이준 형제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졌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각자의 삶을 통해 하루하루를 예배로 드리는 온누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급진단 2000선교 본부장 김홍주 목사와 함께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코로나19

“코로나19가 어려운 상황은 분명하지만 극복하면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릴 것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다. 특히 방역과 의료 환경이 열악한 제3세계에서는 더 아프고 더 깊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역이 중단됐고, 선교사들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절박한 상황이다. 본지에서는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의 어떻게 지내고 있고, 선교지에서 어떻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선교적 관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등을 온누리 선교기관장들과 점검해보는 코너를 마련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2000선교본부장 김홍주 목사와 함께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코로나19’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2000선교본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상황이 어떻게
니까?**

“한국은 비교적 코로나19에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동제한과 지역봉쇄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정상적인 생활과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역들보다 지금은 긴급구호에 집중하며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선교본부와 선교기관들도 지금은 선교사님들의 위기관리,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많은 주민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일용직들이 많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고,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선교지 주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선교사님들의 부르짖음이 선교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가정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2000선교본부와 온누리교회 선교기관들은 지금까지 44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가정 60가구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를 실시했습니다. 약 2억 원 상당의 마스크와 식료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도와야 할 선교지는 많아지는데 제

정적 한계가 있어 고민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주민들의 안전이 염려 됩니다

“맞습니다. 선교지 주민들을 돌보기 위해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덕분에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역이 중단된 상태에서 의료 환경이 취약한 선교지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000선교본부는 선교사님들의 판단과 선교사님을 파송한 선교단체의 의견에 따라 귀국을 원하는 선교사님들의 항공료, 자가격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7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귀국한 상태입니다. 공항마중과 자가격리, 그리고 생필품지원 등 선교사님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선교사님들이 지낼 숙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교사님들이 지낼 숙소가 부족하지 않은데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귀국하게 되면 숙소가 부족할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 예상되는 어려움이
무엇이고, 대안이 있습니까?**

“네.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안에 끝난다면 다시 선교사님들도 사역지로 돌아가고 선교지도 일상을 되찾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지요. 만일 이 사태가 몇 년 이상 더 지속된다면 지금의 비정상적인 삶이 표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교사들의 비자발급부터 사역의 많은 부분이 변화될 것입니다. 심하면 선교사님들이 본래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역지 재조정과 재배치가 필요하겠지요. 그에 따른 대안은 온누리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국내 이주민, 다문화, 난민사역에 선교사님들을 재배치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많은 사역자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교사님들의 비대면 원격사역도 더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여름 아웃리치가 중단됐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2000선교본부로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아웃리치를 중단하게 된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름 아웃리치는 온누리교회 선교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지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예전보다 해외 아웃리치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해외에 나가는 것을 꺼리고, 선교지에서도 예전처럼 외부인을 환영하지 않을 테니까요. 2000선교본부는 단기적으로는 성도님들이 선교현장을 방문하지 못해도 영상과 온라인을 통해 선교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영상제작과 원격교육을 위한 스킴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이제 온누리교회 선교사라면 영상제작과 온라인 강의정도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장비와 교육자료 등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선교지를 방문할 수 없어도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선교지의 생생한 정보들을 영상으로 받

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선교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실시간으로 화상에서 교제하고, 기도모임도 갖고, 강의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선교사님들과 소통하며 원격진료나 선교사 자녀교육, 그리고 다양한 사역들에 원거리에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아웃리치의 일상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기가 되어 토요일예배가 시작되었습니 다. 이제 토요일 오전 9시 예배를 드린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활용하는 ‘원데이 아웃리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 다. 이주민, 난민, 다문화가정, 유학생 등 국내에도 성도님들의 손길이 필요한 사역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여럿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아웃리치를 통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교역자는 코치, 성도들이 선수’라는 목회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교도 선교사들은 코치가 되고, 성도님들이 선수가 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선교도 발 빠르고 적절하게 적응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선교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
습니까?**

“큰 변화는 온라인 사역을 강화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온라인만으로는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교제를 기반으로 하는 오프라인 사역이 바탕이 되고, 온라인 사역은 오프라인 사역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본래 이재훈 목사님은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선교방향으로 축매선교, 협력선교 그리고 융합선교를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선교사가 주도하는 선교가 아니라, 현지 교회나 현지인 사역자들을 지원해서 그들이 스스로 사역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교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이러한 선교의 방향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지인과의 협력선교,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역을 융합하는 선교 등이 되겠지요. 코로나19는 분명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극복한다면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선교지 긴급구호 내역

NO	사역국가	선교사 이름	지원 내역
1	과테말라	한흥태, 한필연	1) 마스크 GF-95 500개, 2) 손소독제 300개, 3) 식료품 100가정
2	도미니카공화국	김종호, 이교자	1) 마교리교회 식료품 지원 15가정, 2) 산토도밍고교회 식료품 지원 15가정, 3) 지역내 노숙자 식사 제공
3	콜롬비아	정진모, 정혜진	1) 천마스크, 2) 식료품 (쌀, 통조림)
4	콜롬비아, 페루	김주태	1) 쌀, 밀가루, 국수, 감자, 2) 식물성 기름, 3) 토마토 퓨레 캔
5	쿠바	차경선, 차정인	1) 비누, 세탁 세제, 치약, 칫솔, 2) 식용유, 3) 손소독제, 천마스크 제작비
6	멕시코	박성주, 노영이	1) 마스크, 2) 손소독제, 3) 식료품
7	A국 Y시	O미O	1) 마스크, 2) 의료용 안경, 3) 방호복
8	동아시아A국	O관O, O수O	1) COVID19 진단시약(SD biosensor), 2) 소독용 연막 소독기, 3) 소독액, 4) 마스크, 손세정제
9	동아시아A국	강O대, 김O정	1) 마스크 366개, 2) 비누 366개, 손소독제, 3) 밀가루, 쌀, 감자
10	동아시아A국	강O대, O징O	1) 마스크 100장, 2) 밀가루 40kg, 3) 고기 40kg
11	동아시아A국	강O대, 보O	1) 마스크 140장, 2) 밀가루 140kg, 3) 고기 140kg
12	동아시아A국	한O훈	1) 마스크, 2) 손소독제
13	남아시아D국	이O오	1) 쌀 22가마, 콩 42되, 2)식용유 42통, 3)간쌀국수 90팩(예봉지 교회 사역자 및 일용직 성도 지원)
14	V국	정O훈	1) 쌀 2,500kg(수상가옥촌 빈곤가정 지원)
15	I국 R지역	이O희	1) 쌀 450포(지역주민 300가구, 지역교회 1곳, 신학교 120명), 2) 식용유 300개 (지역주민) 3) 박테리아 세균 제거 1000개 (지역주민)유튜브 검색
16	I국 P지역	박O성	1) 쌀 10kg(지방사역자 30가정, P지역 전도대상자 15가정, 극빈지역 5개교회 300가정, FM팀 극빈층 25가정 지원)
17	I국 L지역	추O엽	1) 식료품, 2) 생필품(L족 과부, 극빈자, 노인, 영유아 총 300명, D UN 교회 100명 현지선교사 D목사 목양교회 150명, 현지 ecc직원, W공동체사역자 교회 50명, 지역 일용노동자 250명 지원)
18	남아시아 N국	조규연	1) 정어리세트 110개 , 간장 110개, 액젓 110개, 쌀 6가마, 2) 세탁세제 110개, 비누 110개, 3) 마스크 110개(3교회 지원 : J 교회, S 교회, B교회) 마스크 10박스, 9 손소독제 10개(L 교회 지원)
19	남아시아 N국	민성기	1) 쌀 100가구, 정어리통조림 100팩, 액젓 100가구, 간장 100가구, 2) 세탁세제 100가구(성도 및 지역공동체 지원)
20	필리핀	남미선	1) 쌀 750kg(150가정), 2) 통조림식품 300개 (150가정), 3) 라면 300개(150가정) (지역 공동체 및 조합원 가정 지원)
21	남아시아 M국	어O선 / 레베카	1) 쌀 20kg, 콩 3kg, 기름, 밀가루 2kg, 소금, 설탕, 2) 마스크, 손소독제, 비누, 3) 3지역으로의 포장 및 운송비
22	남아시아 M국	어O선 / 존	1) 쌀 5kg, 양파 2kg, 감자 2kg \$200, 콩 5kg \$800, 식용유 한 달분 \$200 2) 손소독비누 \$200(교회 성도 100가정)
23	남아시아 H국	요한 / 바타	쌀 25kgx214, 호밀가루 5kgx214, 식용유 2kgx214, 콩 3kgx214
24	남아시아 H국	요한 / 라주	쌀 120팩, 식용유 120팩, 콩 120kg, 현미밀가루 120kg(지역 공동체, 성도가정 및 센터학생들 가정 지원)
25	남아시아 H국	다니엘	쌀 25kgx50, 호밀가루 5kgx50, 식용유 2kgx50, 콩 3kgx50
26	남아시아 E국	예녹	쌀 400kg, 녹두 400kg, 밀가루 400kg 콩기름 400ℓ (G 신학교 기숙사 신학생 30명, B 교회 30가정, S 교회 30가정, 거주지 인근 빈민 40가정)
27	남아시아 K국	빌립	쌀, 식용유, 식품 등, 2) 상비약품, 마스크,소독제 교회 비치 비용(J교회 30가정, H 교회 15가정, TIM현지인사역자 길목사 D 교회 30가정, 사역자 16명 지원)
28	스리랑카 베다	이O희	쌀, 코코넛, 렌틸콩, 설탕, 밀가루, 요리용 파우더, 소금, 양파(헤나니갈러, 라투갈러, 베다마을 520가정)
29	남아시아 B국	정은유	1) 마스크 50박스, 2) 손소독제 20개(주변지역 성도들 및 공동체 지원)
30	소아시아 T국 I시	손충성	1) 생필품박스(밀가루 설탕 식용유 등), 2) 생필품 구매용 카드
31	소아시아 T국 B시	김순중	1) B교회 14개, 2) 교회 8개
32	소아시아 T국 E시	이영광	1) 식생활용품 100명, 2) 마켓카드 100명
33	소아시아 T국 A시	김바나바	1) 터키인 3가정 10명, 2) 이란 1가정x\$50 + 싱글7명, 3) 아프가니스탄 1가정x\$50+싱글 1명
34	소아시아 T국 IZ시	햄릿	마켓카드 \$40x5가정
35	러시아	김창규	1) 마카로니 1000개, 메밀 1000kg, 감자 1000kg, 설탕 1000kg, 2) 마스크 3000개, 손소독제 1000개
36	중앙아시아 E국	요셉	1) 손소독제 300개, 비누 300개, 2) 마스크제작용 천 150미터, 마스크제작 인건비 1000개
37	카자흐스탄 A시	신영	1) 쌀, 밀가루, 국수, 기타, 2) 휴지, 세제, 기타
38	이스라엘	아브라함	1) 마스크 7개+손소독제+장갑 세트, 전자체온측정기, 2) 생필품, 식량 패키지
39	J국 A시	요셉	과부가정 13가정(시리아 9가정+ 이라크 4가정), 고아가정 2가정, 예멘인 가정교회 5가정 시리아 구도자 가정 20가정, 이라크 기독교인중 빈민자 10가정
40	J국 A시	밀알	자크카 지역의 난민센터에 있는 과부 50명, 재정이 어려운 이집트 교인 5가정 M교회 난민, 이집트, 가난한 요르단인 20가정, 5년간 교제한 가난한 요르단 사람 5가정
41	J국 A시	김O영	생활이 어려워진 전 켈시 교사, E 교회 난민 50가정, M난민 센터 20가정
42	아프리카 C국	이O수	쌀 50kg, 손세정제 500ml, 손세정제 125ml, 핸드워시 550ml, 핸드워시 200ml, 양파 18kg
43	케냐	김현우	1) 교인지원 : 쌀 5kg, 옥수수, 밀가루 등 2) 목회자지원 : 한달에 \$30x2달(7명) 3) 주민지원 : 옥수수, 밀가루 각 1개씩 40가정
44	스리랑카 해튼	박영근	1) 식료품, 2) 생필품(현지9개 교회지원: 해턴 AGO교회, ZION교회, 보가원달라복음교회, 자프타 RAINBOW교회, CHRISTIAN FAMILY교회, HOUSEOF PRAISE교회, ISSAMAHARAMA AOG교회,RUNUGAMWEHERA AOG교회)
45	중동 F국	갈렘	1) 마스크, 손세정제, 2) 식료품
46	아프리카 D국	박서일	마스크 FFP2 404개, 의료용 마스크 또는 천마스크 1,010개, 비누 20개, 손소독제 80개
47	아프리카 F국	김O윤	1) 마스크 500개, 손소독제 250개, 2) 쌀 4.5kg 250개, 기름 0.9ℓ 250개, 분유 400g 250개
48	아프리카 G국	이O지	1) 면마스크 1000개, 2)설탕 400kg
49	중동 A국	심O섭	1) 주민 20여명의 긴급생활 지원비
50	아시아 전역	조만복	1) 온라인 양육을 위한 기자재
51	하와이	정영백	1) 식량, 2) 진료현막, 아이스박스, 3) 물품 창고, 4) 지역 사역자 지원
52	말라위	이석열	1) 예방교육, 2)마스크, 손소독제, 장갑, 비누
53	우간다	정봉진	1) 2,298명 급식 지원, 2) 100여 마을 위생 스탠드, 비누 설치, 3) 비누 배분
54	르완다	김홍국, 김영일	1) 338가족(식량 4인 가족 1개월 분량) 쌀, 옥수수 가루, 콩, 식용유 2) 방역 용품: 마스크 2,000장, 비누 10,000개, 방호복 900벌, 손소독제
55	세네갈	백원경	1) 935가구에 비누 지원
56	부르키나파소	현지 사역자	1) 마스크 4,200개, 비누 2,100개
57	스리랑카	도재춘, 이O희	1) 아길마을 106가구(4인, 1개월 분량): 쌀, 콩고기, 설탕, 달, 밀크파우더, 마른밀치
58	몽골	이창욱	1) 마스크 200개, 손소독제 20개 지원
59	네팔	동주연	1) 손소독제, 마스크, 향균비누, 쌀, 달(녹두), 영양제, 밀가루, 계란, 밀가루, 소금, 여성용품, 감염예방 포스터
60	인도네시아	추주엽	1) 손소독 비누 3,100개, 마스크 4,500개, 방호복 500벌, 비접촉 체온계 12개
61	온두라스	현지 사역자	1) 마스크 2,400장, 소독제 30개
62	멕시코	현지 사역자	1) 주민 1000명 1개월 분량의 식량

선교지에서 온 편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멕시코는 3월 초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해서 5월 이후 매일 1천 명 이상의 확진자와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시작된 경제활동 제한은 현지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주관으로 열린 중남미지역 전략회의에서 본부장님으로부터 의미 있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간단한 명제 하에 온누리교회가 선교지 주민들에게 긴급하게 끼니와 위생용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이웃들이 끼니를 해결하는 일을 돕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재정으로 는 기껏 몇 가정을 한 번 정도 도울 수 있었는데, 온누리교회의 지원으로 2주 동안 60가정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월 5일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보내주신 신실한 두 자매 마리아와 호셀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식재료를 포장하는 일은 선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ITP신학교 교수 및 학생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총 61가정에 쌀, 밀가루, 콩, 달걀, 생닭 등 일주일치 식재료를 나눠줬는데 그 중에서 산프란세스코라고 하는 선교센터 인근 마을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총 100가정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마을이 마치 광야 같이 황량했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면 마을 전체를 도울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작은 기대와 함께 스쳐갔지만, 100가정 모두를 돕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 4월 두 달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갇혀 지내면서 무기력했던 저희 부부에게 5월 5일 있었던 지원사역은 기쁨이었고, 큰 에너지였습니다. 사역을 기록한 영상을 만들고, 기도편지를 동역자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저희 부부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소식들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편지를 받으신 동역자 중에서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시고자 헌금을 보내셨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5월 12일에는 교회의 지원과 헌금을 합해 산프란세스코 100여 가정 모두에게 2~3주 정도의 식재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 계획했던 예산의 3.5배나 되는 금액이고, 두 번만 하려고 했던 사역이 최소 네 번으로 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진정으로 짧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국가로부터도 소외되어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던 그 작은 마을에도 넉넉히 닿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시오.

/ 박성주, 노영이 선교사(멕시코 뿌에블라)

거듭나는 크리스천을 위하여

이기심 버려야 빛과 소금 될 수 있다!

이타적 사랑, 교회와 크리스천의 정체성과 사명
아브라함, 초대교회, 예수가 보여준 바로 그 사랑

크리스천은 거듭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거듭남을 경험하는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본지에서는 '거듭나는 크리스천을 위하여'를 주제로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버려야 할 감정과 습성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그 두 번째 주제는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크리스천'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서빙고 교역자들이 공감소비운동 일환으로 장신대 학생들에게 비상식량 및 위생용품을 포장해 선물했다.

지역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계층 이기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다. 어쩌면 현대인들은 이기심의 노예로 전락해버렸는지도 모른다. 크리스천도 예외가 아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이기적인 사람들의 대명사'라고 비난한다. 크리스천이 그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크리스천의 이기적인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한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주인에게 인도하지는 못할지언정 실족하게 만드는 크리스천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할까? 이기심을 버려야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날 수 있다.

코로나19가 확산 되고 있던 지난 3월, 제주 특별자치도에 해외여행 이력이 있고 코로나19 증상까지 있는데도 자가격리 수칙을 무시하고 여행을 간 모녀가 있었다.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분노했다. 어디 이뿐인가. 일부 이기적인 시민들의 행태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클럽 등 유흥시설을 간 젊은이들,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하다며 거주지를 이탈한 자가격리자, 유증상자이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지원받은 한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자가격리 중에 편의점에 간 외국인까지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공동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

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기주의의 중심에 크리스천이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의 행동은 크리스천을 향한 부정적 이미지의 정점을 찍었다. “종교가 전 세계적 위기 앞에 위로는 못해 줄망정 나서서 타인의 목숨을 위협할지 모르는 행동을 하고, 타인의 고통과 눈물에는 관심도 없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일부 교회와 크리스천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분노한 시민들이 교회 예배를 금지해 달라는 청원과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을 정도니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을 공감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아 몹시 안타깝다.

라반과 에돔, 성경에 기록된 이기주의

교회와 크리스천의 이기적인 모습은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구약시절부터 이기적인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계속 있어왔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라반이다. 라반은 리브가의 오라비이고,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이며, 야곱의 장인이자 외삼촌이다. 그는 이기적인 탐욕의 소유자였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

은 노여워하는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라헬을 사랑하게 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일했다. 그런데 라반이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시집보내버린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라며 따져 묻는 야곱에게 라반은 라헬을 줄 터이니 7년을 더 일하라고 종용한다. 결국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견뎌야 했다. 라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두 딸마저 이용했고, 사위 야곱을 대할 때도 순전히 자기 이익만을 구하려 했다. 그는 분명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려는 이기주의자였다.

비정하리만치 이기적인 모습은 에돔의 멸망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다.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야곱과 에서)로 출생할 때부터 시작됐을 정도로 에돔과 유다 족속(이스라엘)의 갈등의 역사가 깊다. 그 깊은 골만큼 에돔은 이스라엘 족속을 미워했다. 에돔은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멸망시키려 할 때, 바벨론 편에서 유다의 멸망을 도왔다. 에돔은 유다가 환난을 당할 때 외면하고, 도리어 그들의 재물을 탈취했으며, 그들의 멸망에 크게 입을 벌리고 환호할 정도로 기뻐했다. 도망하는 유대인을 막아서고 남은 자들을 인신매매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무정하리만치 이기적인 에돔을 향해 하나님은 멸망이라는 심판을 내렸고, 에돔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비극을 맞이했다(AD 70년).

아브라함, 초대교회, 예수님의 이타적 사랑

교회와 크리스천은 결코 이기적으로 평가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이타적 사랑’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초대교회, 예수님이 바로 그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다. 제자들과 후손들이 그들의 이타적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사명일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위기에 처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뛰어들었다(창 14장).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당시 근동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잡히고 말았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애초에 악한 땅이었던 소돔을 택한 조카에 대한 비방이 아니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창 14:14).

아마도 아브라함 주변 사람들은 무모해 보이는 결정을 만류했을 것이다. 일개 민간인이

어떻게 큰 연합군과 싸워 이기겠느냐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오로지 환난에 처한 조카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떠났다.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이기주의자였다면 결코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위기에 처한 형제(이웃)를 돕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셨다(창 15:5).

초대교회가 보여준 이타적인 사랑 또한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았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7).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교제하고, 마음을 합해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성령 충만해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먹었다. 날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냈다(행 1:14, 2:44~45, 4:32~34). 초대교회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공동체 중심의 삶을 지향했다. 이타적인 삶과 예배를 몸소 실천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며,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셨다. 예수의 이타적인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하셨다(갈 1:4).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거듭나야 한다. 아브라함,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보여준 바로 그 이타적 사랑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 기독교의 시작도 끝도 사랑이다. 온누리교회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공감소비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온누리교회 298개 다락방에서 372개 사연(5월 2일 기준)을 접수했을 정도로 성도들의 관심과 호응이 뜨겁다. 김영환 장로(OCC공동체)는 공감소비운동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도입했다. 회식비와 야유회 비용을 상품권으로 바꿔 직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독려했다. CGNTV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작은 교회를 선정해서 장비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예배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 모든 행동의 기반이 바로 이타적 사랑이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창 13:9)고 했던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기주의를 버리고 거듭나는 크리스천이 되는 길이다.

전문가 기고

이기주의의 넘어서는 크리스천

‘자기부인’과 ‘자기수용’의 균형

오은규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이기주의 현상을 지칭하는 ‘넘비(NIMBY)’라는 용어가 있다. ‘Not In My Backyard’의 약자이다.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아니한 일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말한다. 내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선다거나 장애인 시설, 노숙자 시설, 화장장, 임대 주택 등이 들어설 때 거주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하는 행위다.

넘비가 문제되는 이유는 첫째,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 문제가 되지 않거나 오히려 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 단순히 집값이 하락하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넘비가 문제되는 이유는 첫째,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 문제가 되지 않거나 오히려 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 단순히 집값이 하락하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가 많이 듣는 신조어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다. 처음에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으로 이기적인 태도를 지적하는데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내가 집이나 땅을 사면 투자가 되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투기로 여기는 형태와 같다.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사회의 이기주의 현상을 지적한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기주의적 삶의 형태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기주의의 또 다른 모습은 ‘자기애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상담코칭학 교수인 유영권(2005년)은 한국 교회 쇠퇴의 요인으로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지적하고 있다. 자기애적 성향이 병리적으로 되면 ‘자기애적 성격장애’가 된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과도하게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지 않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시기과 질투, 칭찬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지루함과 공허감을 느끼면서 항상 자극적인 것을 찾는다. 교회에서는 지도자에 대한 의존욕구와 하나님에 대한 의존욕구가 융합되어 지도자를 과도하게 추앙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님 안에서 소명과 사명 깨닫기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이기적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의 '돌아온 탕자' (워싱턴 국립미술관).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본래의 자신이 되기 위해서 자기수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된 이유를 애정의 결핍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사람에게서는 타자로부터의 충분한 사랑을 통한 자기수용이 필요하다.

자기부인과 자기수용의 역설적 긴장 형태를 어떻게 조화시켜 이기주의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누가복음 15장 11절-32절까지 내용을 ‘탕자의 비유’라고 부른다. 비유 속에는 세 사람이 등장한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 묵묵히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온 맏아들, 그리고 두 아들을 따뜻하게 품는 아버지다. 목회상담학자 박노권(2010년)은 탕자의 비유를 심층심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했는데, 그 속에서 자기부인과 자기수용의 통찰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탕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이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마음을 초자아(superego), 자아(ego), 원본능(id)으로 구분하였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 맏아들, 아버지는 마치 이 세 가지 형태의 마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들은 억제되지 않은 쾌락을 추구하고, 종교적 금기를 깨뜨리고,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 그는 본능의 지배를 받은 인물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고, 본능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기적 삶을 살아간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고 나서 아버지에게 돌아왔다. 그는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의 통제 안에 머무르기로 작정한다.

맏아들은 프로이드의 마음 구조에서 초자아

의 모습을 보여준다. 초자아란 도덕, 종교, 법, 심판의 자리에 있는 자아를 말한다. 흔히 바른 생활을 하는 도덕선생, 모범적인 종교인, 부모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맏아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눅 15:29)이라고 했다. 그는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화를 내고, 성적인 욕구를 제멋대로 사용한 동생을 혹독하게 정죄했다. 그는 의롭고 모범적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감정이 상한 것이다. 그의 도덕적 판단은 옳은 것 같지만 매우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맏아들의 모습에서 떠올리게 된다.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서 이기적인 교만과 엄격한 도덕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두 아들의 부족한 모습은 아버지 안에서 연합하게 된다. 큰아들은 여전히 화가 나 있고, 둘째 아들의 회개는 물질적 회개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두 아들의 변화된 모습과 상관없이 은혜로 그들을 수용한다. 아버지의 통제 안에서 두 아들은 온전히 받아들여진다.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아버지는 에고(ego) 역할을 한다. 에고는 원래 본능과 초자아를 잘 조절해서 현실적으로 기능하게 만든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이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 속에는 본능을 추구하고자 하는 쾌락원리와 초자아를 통해 타인을 정죄하는 두 가지 모습이 갈등과 긴장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우리는 늘 내 안에 있는 통제되지 않은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부인이 필요하다. 둘째 아들의 욕망을 부러워하면서도

초자아적 삶에 억눌려 자신의 삶을 보지 못하는 맏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욕망이 수용되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두 아들을 품어 준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두 아들은 인격의 두 부분인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아들은 무의식의 상징이다. 그는 자신의 욕구를 따라 자아실현을 시도했다. 놀기 좋아하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추구했다. 그러나 그는 의식적인 통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위기를 경험했다. 그가 겪은 삶의 위기는 그로 하여금 개성화의 길로 이끌어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만든다. 그는 자신의 욕구를 정직하게 인식하고, 아버지 안에서 음식과 옷과 같은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

반면 맏아들은 정신의 의식적인 부분을 대표한다. 그는 특권, 우월,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거부한 에로스는 그림자로서 억압된 무의식의 한 측면이다. 사실 동생을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속으로 동생의 삶을 부러워했는지 모른다. 그의 어두운 욕망이 그의 동생에게 강하게 투사되어 비난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가끔 사회면을 장식하는 스캔들을 접하면서 강하게 분노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개성화된 자기(Self)의 모습을 보여준다. 두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서로 반대되는 본질들의 화해를 경험한다. 아버지는 두 아들의 양극단을 모두 수용하고 통합함으로써 건강한 자기를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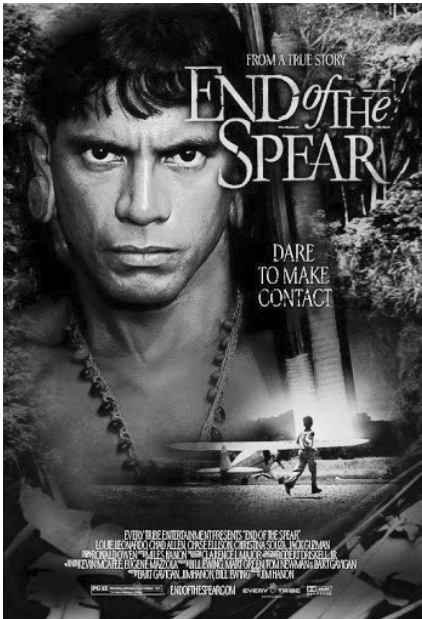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귀한 형상들이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성과 죄성을 모두 부인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이기적인 자아와 중심성을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한다.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결단을 함으로써 진정한 주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자기수용은 자기에 대한 과도한 사랑과 집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삶, 이기적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안에 이기적인 욕망이 있음을 인정하고, 비우려는 자기부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내면의 욕구를 채울 때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될 때 자기부인과 자기수용의 적절한 통제 속에서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영화 읽어주는 목사

복음은 놀라운 용서와 화해의 스토리



영화 <End of the spear(창끝)>

1956년 에콰도르의 아마존 지역에서 다섯 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순교한 사건이 발생했다. 짐 엘리엇을 비롯한 다섯 명의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저서 등으로 알려져 지금도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다.

이 영화는 선교영화로 소개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용서와 화해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영화의 스토리가 다섯 명의 선교사가 순교한 시점인 1956년이 아니라 그로부터 13년 전인 1943년부터 시작된다. 그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복수와 분노 이야기가 바로 그때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와다니족은 공포하기로 유명한 부족이었다. 그들의 잔혹함은 부족의 절반 이상이 동족의 창에 찔려 죽어왔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누군가의 죽음은 복수를 낳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으며, 보복의 악순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종족이었다. 그들은 계속 창으로 찌르면 강해질 수 있고, 그렇게 강해진 자는 죽은 후에 ‘위대한 보아’라는 그들의 절대자에게 뛰어오를 수 있다고 믿었다. 살육과 보복의 세계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었다.

1943년, 와다니족의 지도자 만카야니가 어린 시절 인근 부족인 애노메나미족의 습격을 받았다. 늘 가족의 원수에게 보복하는 창날을 갈아온 만카야니는 결국 가족의 원수를 갚지만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1956년 에콰도르에서 선교사역을 하던 항공 선교사 네이트는 아마존 유역을 정찰하던 중에 간절히 찾던 와다니족을 발견하게 된다. 처

음으로 와다니족과 접촉한 다섯 명의 선교사들은 그 자리에서 그들의 창끝에 찔려 순교한다.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지만 자신들을 죽이려는 원주민들에게 발포하지 않았다. 네이트 선교사는 만카야니의 창에 찔려 죽으면서 이렇게 말한다.

“부아 비아 움보아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 사건은 와다니족과 선교사 가족 모두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 남편을 잃은 여성 선교사들이 아이들을 안고 와다니족 안으로 들어갔고, 병에 걸린 애노메나미족을 치료하면서 두 부족의 화해를 이끌어낸다. 그리고 와다니족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제 그들 부족 간 보복의 악순환은 끊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보복의 고리가 있었다. 선교사 네이트를 죽인 만카야니와 네이트의 아들 스티브의 관계였다.

1994년 와다니족 선교에 끝까지 헌신한 레이첼 선교사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스티브가 오랜만에 와다니족을 찾았다. 어느새 노인이 된 만카야니는 스티브를 데리고 네이트가 죽었던 자리에 가서 “내가 그를 죽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스스로 창을 겨누어 네이트의 손에 쥐어준다. 하지만 네이트는 창을 버린다. 와다니족을 묶었던 보복의 저주

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다.

이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스티브는 이듬해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사업을 접고 아마존의 와다니족 마을에 들어가 선교사역을 시작한다. 만카야니는 스티브의 양아버지가 된다. 엔딩 크레딧 중에 만카야니와 미국에 갔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스티브의 인터뷰가 용서가 맺은 그들의 행복한 삶을 엿보게 한다. 영화 중에 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도 나온다.

“웬공기(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그는 찔려 죽으셨다. 그러나 그는 복수하지 않으셨다. 그럼으로써 그를 찌른 사람들이 후에는 옳게 살게 하시려고 그러셨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놀라운 용서와 화해의 스토리다. 우리의 죄의 창끝이 그분을 찔렀지만,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 용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용서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행위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놀라운 용서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도 계속 이어지길 소망한다.

김윤식 목사
(W공동체)

Q&A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제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답: “참된 구원의 확신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통해 성도는 최종적인 승리를 미리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고, 구원의 확신을 위해 기도한다면 참된 확신을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천국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영적 침체나 게으름에 빠졌을 때, 죄 중에 있을 때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의 고난을 주실 때에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졌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8).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늘도 성도 안에서 확실히 증거 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우리의 부패한 상태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회복하여 영원한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8조 3항에 따르면 “절대로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 참된 신자라도 확신에 참여하기까지 오래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과 싸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다. 구원의 확신의 유무에 의해서 구원의 유무를 결정지을 수는 없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의지하여 두려움이 나 방탕에 빠지지 말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할 것이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가 거둔다는 것은 썩

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벧전 1:23)라고 말씀하고 있다. 참된 구원은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참된 확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닌지 질문할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은 성도의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성도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기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생각할 때 흔히 천국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삶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도록 구원의 확신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 성경은 성도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모든 성도들은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한다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회복할 수 있다.

참된 구원의 확신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고 누릴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을 통해 성도는 최종적인 승리를 미리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고 구원의 확신을 위해 기도한다면 참된 확신을 선물로 받게 될 줄 믿는다. 참된 확신에 대해 패니 크로스비는 새찬송가 288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모든 성도들 믿음의 여정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한다.

김병조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조선 교회사(史)가 곧 한국의 근대화다

조선 교회, 황폐한 농촌을 일깨우다!

농촌계몽운동의 선구자 최용신과 배민수 목사

조선 교회사(史)가 곧 한국의 근대화다.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한국의 근대화는 불가능했거나 아주 많이 늦춰졌을지도 모른다.

한국 근대화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한국 근대화의 씨앗이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조선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은 의료와 교육, 여성운동과 계몽운동, 상업장려운동과 독립운동 등을 이끌면서 우리 민족의 기적 같은 역사를 써 내려갔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그 아름답고 빛나는 조선의 선교 역사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번 순서에서는 조선 교회가 황폐한 농촌을 일깨운 이야기를 소개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구한말 조선의 농촌은 큰 변화를 맞이한다. 조선은 1800년대 말부터 쌀을 공식적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쌀값 상승과 지주제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쌀값이 올랐는데도 소농과 빈농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 소작료와 세금을 동시에 내야 하는 부담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 시기 경기도 광주 지역 농가 10%인 부농과 중농이 전체 농지의 70%를 차지했고, 대다수 소농과 빈농이 30% 정도의 농지를 소유했다.

일본과의 강제합병 이후 농촌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지주제를 기반으로 한 식민농업은 소농과 빈농들의 몰락을 가져왔다.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수리조합비용, 비료값, 소작료 등에 떠밀려 수확 직후 쌀값을 따지지 않고 판매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옆집에 댔던 격으로 쌀값마저 떨어지게 되는데 쌀 외의 다른 농작물을 키웠다면 농촌이 회생할 가능성이라도 있었지만 일제의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조선의 농촌은 쌀 단작화를 더욱 강화했다. 같은 시기, 일본의 농촌은 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쌀값이 하락한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의 발전을 이끌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농촌의 경제가 황폐해지자 농민들은 만주나 일본 등지로 떠나거나 소작쟁의 같은 농민운동을 벌이면서 지주와 일제에 대항하게 이른다.

교박 일해도 남는 건 빛뿐인 처지

1930년부터 1932년까지 조선농회가 실시한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자작농은 연간 65엔, 자소작농은 연간 10엔, 소작농은 32엔 적자를 내고 있었다. 65엔은 자작농이 1정보(약 9917㎡)에서 쌀 10석(1석에 약 160kg)을 생산해야 벌어들이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었다. 당시 농민들이 20정보 이상의 땅이 없다면 1년을 꼬박 일해도 남는 건 빛뿐인 상황에 처한 것이다. 농민들은 살기 위해 화전민이 되어 농촌을 떠나거나 지주와 일제에 맞설 수밖에 없었다. 소작쟁의 같은 농민운동은 1920년대 초반부터 있어왔지만 1930년대 이르러 급격히 확산됐다. 초기에는 지주들에 맞서 소작권 보장, 소작료 인하 등을 요구했지만, 토지혁명을 주



1933년 1월 열린 샘골강습소(천곡학술강습소) 낙성식(앞줄 오른쪽에서 5번째가 최용신).

장하는 적색농민조합이 등장하면서 폭동화를 띄기 시작했다. 땅 한 조각이 없어 고통 받는 농민들에게는 적색농민조합이 더없이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당시 농촌은 일제의 앞잡이나 지주가 되어 다른 조선인을 착취하거나 농촌을 떠나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농촌으로 달려가자! 손을 잡고 달려가자!”

조선 교회는 1920년대 초반부터 YMCA를 중심으로 농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사역을 펼쳐나갔다.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농촌에서 구슬땀 흘렸다. 그들은 농사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구습을 타파하는데도 노력했다. 교육에 힘쓴 인물들도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 최용신이다.

최용신은 원산에서 태어나 당시 기독교명문 여학교였던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수학했다. 최용신은 농촌계몽운동에 관심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농촌에서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용신이 1921년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며 조선일보에 소감문을 게시했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다.

“문화의 눈이 어두운 구여성만 모인 농촌에 암흑에서 진보되지 못한다하면 이 사회는 언제까지 완전한 발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 농촌 여성의 향상은 중등교육을 받은 우리들

의 책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중등교육을 받고 나가는 우리로 화려한 도시의 생활만 동경하고 안일의 처지만 꿈꾸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농촌으로 돌아가 문맹퇴치에 노력하려는가? 거듭 말하노니 우리 농촌으로 달려가자! 손을 잡고 달려가자!”

1931년 최용신은 신학교를 중퇴하고 YMC A 파송으로 경기도 수원군 반월면 샘골(현 안산)을 찾았다. 당시 마을사람들은 샘골을 찾은 최용신을 무시했다. 여자 혼자서 무엇을 하겠냐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용신은 그곳에서 야학을 가르침과 동시에 주민들의 농사일을 도우며 신뢰를 얻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옆 마을에서까지 샘골마을 강습소를 찾아왔고 수업을 오전, 오후, 야간반으로 확대했다. 강습소를 연지 석 달 만에 학생이 100명을 넘어섰고, 주민들의 도움으로 샘골학원도 세웠다. 샘골학원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자 일본 교육부는 최용신과 샘골학원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수업을 못하게 했지만 최용신과 학생들은 한국어 교육을 하며 민족의식을 드높였다.

1934년 최용신은 한 단계 발전한 농촌운동을 펼쳐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불행히도 3개월 만에 병을 얻어 귀국했지만 말이다. 최용신은 요양을 했어야 했는데 샘골로 돌아와 수업을 강행하다 결국 1935년 1월 천국으로 떠난다.

가장 빈곤하고 불운한 처지에 놓여있음으로

농촌에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려고 힘쓴 지도자들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배민수 목사다. 배민수 목사는 의병장 배창근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민족의식과 신앙심이 깊었다. 청소년기 송실중학교에서 수학하며 독립운동가와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영향을 크게 받았다. 국민회 활동을 하다 발각되어 1년 동안 수감되기도 했고, 출옥 후에 성진으로 건너가 3.1운동에 적극 가담하다 또 한 번 수감생활을 했다. 배민수 목사는 민족지도자들과 교류하는 생활을 이어가다 1933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농촌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배민수 목사는 장로교 농촌부 초대총무에 취임해서 농촌운동을 이끌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지역마다 농업대학, 농업진흥청 등을 세워 농사법 등을 전수하는 일을 했다. 그는 또 크리스천들이 마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각 노회에서 추천한 청년들을 교육시키기도 했다. 조선 교회가 농촌계몽운동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교회에서 농촌부, 농우회 등을 조직해서 협동조합, 공동경작 등을 장려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의 농촌은 벼농사만 하는 것이 단점이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수, 화훼, 낙농, 채소, 작물, 토비, 축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전수하는데에도 교회가 앞장섰다. 일제의 방해와 장로교에서 세속적인 농사법 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교회의 농촌운동을 반대해서 잠시 중단된 적도 있었지만 해방 이후 다시 꽃피울 수 있었다. 배민수 목사는 1956년 대전에서 기독교농민학원, 1962년 대전기독교농민학원, 1967년 삼애농업기술학원, 삼애실업학교를 설립하며 농촌운동에 헌신했다. 그가 남긴 〈그 나라와 한국 농촌〉에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농촌계몽운동에 관심이 많았는지 잘 나타나는 대목이 있다.

“예수께서 비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난 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천국은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서 시작된다. 한국 농민은 현재 가장 빈곤하고 불운한 처지에 놓여있음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다.”

전문가 기고

크리스천의 일과 소득에 대한 고찰

소명의식 갖고 일할 때 영광이 드러난다



이주호 팀장
(결혼예비학교
재정 강사)

‘위라벨’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 봤을 것이다. 이 말은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에서 매년 새해 출간하는 〈트렌드 코리아〉에서 언급된 용어인데, 이제는 누구나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가 된 것 같다. 의미인즉 위

크(Work; 일)와 라이프(Life; 삶)의 밸런스(Balance; 균형)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 역시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한마디로 가급적 잔업은 지양하고, 일른 퇴근해서 가족들과 저녁이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예전에는 야간근무는 물론이고,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해서 최대한 많은 소득을 벌고 이를 통해 내 집 마련과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조금 덜 벌더라도 내 삶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크리스천들은 일과 소득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거창고 직업선택의 10계명’

대학교 재학시절 ‘거창고 직업선택의 십계명’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당시 이 십계명을 읽고 나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다. 경상남도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로서는 만약 내가 중학생일 때 이 글을 읽었다면 거창고(경남 거창 소재)를 지원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였다.

거창고 직업선택의 십계명은 故 전성은 장로가 교장으로 있을 때 학생들을 위해 쓴 글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대할 때,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부르신 곳에서
나의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왜 월급을 적게 주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지, 왜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월급도 많이 주고 장래성도 좋은 대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월급의 절반 수준인 중소기업을 찾아가라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아마도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을 계속 쫓아다니기 보다는 진정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직업을 선택하라는 의미인 것 같다.

직장인들은 일할 수 있는 노동연령 동안 평균 35회 직장을 옮기고, 평균 근무기간이 중소기업인의 경우에는 4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어쩌면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직업선택의 기준을 ‘높은 연봉’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이유일 것이다.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한다면 소득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보너스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성경, 일과 소득에 대한 과욕 경고

공자는 〈논어〉에서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며 어떠한 것을 즐기는 자를 당해낼 수 없음을 논했다. 얼마 전 성경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본 적이 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전 3:22).

어느 직장, 어느 직업에 종사하는지 보다는 그 사람이 그 일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즐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나 역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와 금융교육을 진행할 때면 참 많이 떨었던 기억이 난다. 강사로 처음 활동하던 시절에는 얼마나 심장이 빨리 뛰고 목소리가 떨리던지, 준비한 스크립트는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웅설수설했던 기억이 난다. 반면 사명감을 가지고 청중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재밌게 즐기면서 강의하면 어느 순간 강의를 끝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단순히 생계유지 수단으로만 나의 일과 직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루 즐겁다는 마음으로 일을 대

했으면 한다.

전도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일과 소득에 대한 과욕을 경고한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렇다. 두 손 가득가득, 더 많이 추구하는 근심걱정에 둘러싸이는 것보다는 하나는 포기하고 한 손에만 가득한 상태로 평온함이 더 낫다는 의미다. 실제로 일을 즐기기도는 돈 버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 있다. 주일 매출을 포기할 수 없어서 주일예배를 드리는 등 마는 등 하고 사업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일종독에 빠져서 밤늦게까지 심지어는 주말까지 일하느라 가족과 함께 한상에 둘러앉아 담소 나누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조언한다. 차라리 더 많은 수입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것을 말이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 VS 부르심에 의한 사명이자 소명

예전에 어느 칼럼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텐트메이크’ 사역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천막을 만들고 팔았을까? 예수님은 목수로서 목제품을 만들 때 어떠한 태도로 만들었을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듯이 텐트를 만들었던 바울도, 목제품을 만들었던 예수님도, 양을 치던 다윗도 모두 본인들의 일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 바울이 텐트를 대충 만들어 팔면서 사역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텐트를 샀던 군인들과 시민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흔쾌히 받아들였을까?

직업을 나타내는 또 다른 영어 단어인 ‘vocation’(천직)의 원어 뜻은 ‘소명’이라고 한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 job(일, 직장)이라면 vocation(천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사명이며 소명(calling)인 것이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칼뱅은 금욕주의자였던 성직자들이 세속적인 직업에 대한 비판을 늘어놓는 것에 대해서 반대 주장을 펼치면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대할 때,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부르신 곳에서 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온누리교회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3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손신국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로 2길 61 2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4번길 24 제너셀 7층

• 강동 노지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추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미서부

• 엘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정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hisinsaibash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하카미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오 야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국

• 베이징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둥 채기석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 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han zhongdianzhan)

• 상해 김관수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北路 1243号 3楼388室 Shanghai Minhangqu Caobolou 1243hao yongweishangwudasha 3lou 388shi

•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g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미북부

• 시애틀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ll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 오클랜드 유현록 목사 64-21-0810-3132 41 Centorian Dr, Mairangi, Auckland, New Zealand

■미남부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캘리포니아

• 뉴멕시코

• 아리조나

• 유타

• 콜로라도

• 와이오밍

• 네브래스카

• 캔자스

• 미네소타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어쩌다 만나도 마스크 너머
눈짓만으로 인사하지만
CGNTV를 통한 성도의 교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TV와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
작은교회와 취약계층을 찾아가
나눔 사랑은 마스크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CGNTV로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